

사회

통진당 비례대표 선출 대리투표 협의

광주지검, 노동계 인사 등 8명 구속

노동계와 농민회의 주요 인사들이 부정투표 혐의로 대거 구속됐다. 광주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이정현)는 최근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비례대표 선출 과정에서 부정투표를 한 혐의(업무방해)로 노동계 및 농민회 인사 8명을 구속했다. 1명은 대리투표 가담 정도가 적다며 법원 영장실질심사에서 풀려났다.

통합진보당 비례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이들은 같은 혐의로 동시에 구속된 노동계와 농민계 인사인 윤호씨와 문오씨를 위해 대리투표를 한 혐의이다. 대리투표를 통해 윤씨와 문씨는 모두 비례대표 20위권 내에 진입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이들의 대리투표는 민주노총 순천사무실과 보성농민회에서 각각 이뤄졌으며, 13차에서 70여 차례에 걸쳐

통합진보당 당원이 휴대폰으로 받은 인증번호를 통해 대리투표 방식으로 윤씨와 문씨를 찍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문씨의 자택 등 5곳을 압수수색해 핸드폰, 신용카드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구속된 이들을 상대로 대리투표에 나선 이유 등에 대해 집중수사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통합진

보당의 서버를 분석한 결과 온라인 투표자 3만6486명 가운데 1만8885명이 중복된 IP로 투표한 사실을 밝혀내고 전국 13개 검찰청별로 수사하도록 한 바 있다.

광주지검은 지난 8일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후보였던 노동계 인사 윤호씨 등 3명에 대해 청구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한 데 이어 9일 6명 가운데 5명을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통합진보당 광주시장·전남도당은 최근 광주지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은 통합진보당 당원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소환과 사전구속영장 남발 등 공안탄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기로 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가을비와 노란 은행잎 / 광주·전남지역에 가을비가 내린 11일 광주시 남구 봉선동 주택가에 노란 은행잎이 바람에 떨어져 운치를 더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지리산 첫눈

주중 쌀쌀한 날씨

12일부터 시작되는 11월 셋째 주는 주중 한두 차례 비가 내리면서 쌀쌀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3일에는 지리산에 첫눈이 예상된다.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12일 광주·전남지역은 북쪽에서 유입된 찬 공기의 영향으로 기온이 떨어지고, 바람이 많이 불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4~8도, 낮 최고기온은 11~13도 분포로 전망된다.

13일에는 찬 대륙고기압의 확장으로 서해안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산간 지역에는 눈이 내릴 가능성도 높을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다.

기상청은 16~17일에도 기압골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다.

기온은 16일까지 평년(최저기온 -2~9도, 최고기온 12~16도) 보다 낮다가 17일부터 점차 상승하겠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오늘 날씨

해돋이 07시 04분 / 해질 17시 29분 / 달출몰 04시 50분 / 달정 16시 06분

Table showing weather forecasts for various regions in Korea, including temperature ranges and precipitation probabilities.

Table showing sea surface temperature (SST) forecasts for the East and West Seas, including wind direction and wave height.

Table showing sunrise and sunset times for various regions, along with moonrise and moonset times.

Table showing daily weather forecasts for the next 6 days, including temperature ranges and weather icons.

검사는 의사, 경찰은 간호사?

검사 비리 이중수사 속 특임 발언 싸고 검·경 갈등 첨예화

경찰선 강제구인 검토 등 자체 수사 천명

현직 검찰간부의 비리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검찰이 긴급 투입한 김수창(50·사법연수원 19기) 특임검사는 11일 거액수수의 의혹을 받고 있는 A검사의 사무실과 집, 유진그룹 사무실, 공여 사무실과 집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찰은 비리 의혹을 받은 검찰간부 A검사에 대해 강제구인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이번 사건으로 '검경 수사권 갈등'이 첨예화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김 특임검사는 이날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서부지검에서 브리핑을 갖고 "대검찰청 지원을 받아 포렌식 계획팀을 포함한 5~6개 팀이 오전 10시를 기해 압수수색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서 검찰은 지난 8일 단계를 사기범 조희팔의 측근과 대기업

등으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의혹이 있는 부장검사급 검찰간부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검찰청은 9일 김 특임검사를 지명했다. 독자적인 수사권을 보유한 김 특임검사는 검사 10명과 수사관 15명으로 수사팀을 편성했다. 그러나 특임검사가 첫 출근한 지난 10일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A검사에 오는 16일까지 소환에 응하라는 통지서를 보내 독자적으로 수사를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였다. 이에 따라 A검사는 검찰과 경찰에 모두 불려갈 가능성이 커졌다. 경찰 총수인 김기용 경찰청장이 이 사건을 계속 수사하겠다는 방침을 천명한 데 대해 김 특임검사는 "경찰은 서울중앙지검의 지휘를 받아 수사하면 된다. 대검에서는 이 사건에 특임검사

가 적절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임명 받은 이상 의혹을 남기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특임검사는 "검사와 경찰은 수사지휘관에게"라며 선을 그은 뒤 "검찰이 법률을 더 잘 알고 하니까 그래서 직접 수사를 한다"며 더 무겁게 보고 있다는 것 아닌가. 이게 부당한가"라고 반문했다. 김 특임검사는 또 "수사는 검사가 경찰보다 낫다고 해서 수사지휘 하는 거 아닌가. 결과를 봐라. 의혹적 지식은 의사가 간호사보다 낫지 않나"라며 "사시(사법시험)를 왜 보고, 검사를 왜 뽑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간부 비리 수사를 놓고 검찰과 경찰이 극한 대립하는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김 특임검사의 발언은 두 기관의 갈등에 기름을 쏟아붓는 꼴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연합스

안타까운 대리운전 기사

'콜 받고 이동중 만취운전자에 치어 숨져'

대리운전 '콜' 받고 이동중이던 대리운전 기사가 만취 운전자에 몰린 차량에 치어 고가도로에서 추락해 숨졌다. 지난 9일 밤 10시10분께 광주시 남구 송하동 송암고가도로에서 호모(46)씨가 몰던 무소 차량이 고가 내인도를 걸던 대리운전기사 A(55)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A씨는 고가 10m 아래로 추락해 현장에서 숨졌으며, 흥씨는 차량을 버리고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남부경찰은 "대리운전 기사인 A씨가 이날 다른 승객을 태우기 위해 이동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조사 결과 흥씨는 혈중알코올 농도 0.124%로 운전을 하던 중 차량 내에 떨어진 휴대전화를 줍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02년과 2003년 두 차례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흥씨는 처벌이 두려워 사고 직후 도주한 것으로 밝혀졌다. 광주남부경찰은 흥씨에 대해 특가법상 도주차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지난 10일 밤 10시30분께에는 목포시 용당동 횡단보도 인근에서 B(35)씨가 운전하던 포르테 승용차에 C(여·35)씨가 치어 숨졌다. 경찰은 목격자들의 진술에 따라 B씨가 도로변에 누워있던 C씨를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목포=김병관기자 dss6116@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수렵철 총기안전사고 주의보

해남선 실탄장에서 실수로 동료 숨지기도

순천·화순·해남 15일부터 수렵장 개설

해남경찰은 11일 밀렵 도중엔 연합 실탄을 장전하다가 실수로 차량 뒷자리에 있던 동행자를 쏘아 숨지게 한(과실치사 혐의) 김모(49)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9일 밤 11시20분께 해남군 화원면에서 밀렵을 하던 중 차량에서 연합 실탄을 장전하다 실수로 뒷자리에 있던 송모씨(38)의 목 부위를 쏘아 숨지게 한 혐의다. 김씨는 밀렵 사실을 숨기기 위해 나머지 동승자 2명을 귀가시키고, 차량 내부에 있던 사냥개를 치운 뒤 경찰에 출두해 "숨쉬와 단둘이 있는데 염증이 자동으로 격발돼 사망했다"고 진술했지만 이를 수상히 여긴 경찰의 추궁 끝에 범행을 자백했다. 경찰은 김씨와 송씨 이외에 차

량에 동승한 2명에 대해서도 야생 동물 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다. 경찰은 겨울철 밀렵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밀렵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김씨를 상대로 불법 사냥과 총기 출처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전남도는 최근 수렵장 개설지역으로 순천(547km), 화순(425km), 해남(546km) 등을 지정했다. 이들 지역에서는 15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멧돼지, 고라니, 꿩 등의 사냥이 가능하다. 전남도는 단내 22개 시군에서 300여 명의 인솔자를 투입해 불법 수렵과 밀거래 등에 대해 합동 단속하기로 했다. /해남=박희석기자 dia@

A large advertisement for Lotte Travel (롯데제이티비) featuring various travel packages, flight deals, and promotional offers. It includes sections for domestic flights, international travel, and special packages for different regions like Europe, South America, China, and Africa.